

## 호랑이 '황금장갑' 몇개 낄까?

### KIA 윤석민·안치홍·김선빈·이용규 골든 글러브 후보에



**외야수 이용규**

2011 프로야구 마운드를 뜨겁게 달구었던 KIA 윤석민과 삼성 오승환이 '황금장갑'을 놓고 2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8일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수상자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다.

출장 경기 수와 공·수 성적을 기준으로 투수 4명, 포수 3명, 1루수 3명, 2루수 3명, 3루수 4명, 유격수 4명, 외야수 10명, 지명타자 3명 등 총 34명이 후보에 선정됐다.

KIA에서는 윤석민(투수), 안치홍(2루수), 김선빈(유격수), 이용규(외야수)가 황금장갑에 도전한다.

평균자책점 3.00 이하, 15승 이상 또는 25세 이하 이상의 성적을 낸 선수가 후보로 뽑힌 투수 부문에서는 4관왕에 빛나는 MVP 윤석민과 '끝판대장' 오승환이 재대결을 벌인다. 홈런왕 정우람(SK), 두산의 특급 용병 니퍼트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타자는 규정타석을 채우고, 수비수로 88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에서 선발됐다.

SK로 자리를 옮긴 조인성과 롯데 강민호, 두산 양의지가 포수부도 후보가 됐고, 일본 진출을 눈앞에 둔 이대호가 버티고 있는 1루 자리에서는 박정권(SK), 최준석(두산)이 도전했다.



**유격수 김선빈**

데뷔 3시즌 만에 3할 고지를 밟은 KIA 안치홍은 2루수 골든글러브 유력 후보로 도루왕 오재원과 한화의 한상훈이 2루 경쟁자다. 3루 자리에서는 박석민(삼성), 최정(SK), 황재균(롯데), 정성훈(LG)이 각축을 벌인다.

KIA 김선빈이 명함을 내민 유격수 자리에서는 삼성 김상수, 한화 이대수, 넥센 강정호가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홈런·타점·장타율 1위를 독식한 최형우(삼성)가 외야 한자리를 예약한 가운데 KIA의 톱타자 이용규, 손아섭·전준우(이상 롯데),



**2루수 안치홍**

이종욱·김현수·정수빈(이상 두산), 이병규(LG·9번), 강동우(한화), 유한준(넥센)이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올 시즌 강력한 선수가 등장하지 않은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롯데 홍성흔, 두산 김동주, LG 박용택이 후보다.

두산은 3루수와 유격수를 제외한 6개 부문에 가장 많은 8명의 후보를 배출했고, 롯데가 6명으로 그 뒤에 올랐다. 두산 니퍼트는 유일한 외국인 선수고, 신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투수 윤석민**

골든글러브 투표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1일간 프로야구를 취재한 기자단과 중계 담당자 등 미디어 관계자 3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서울 대치동 SETEC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

12월 3일 광주 진월동 밀러타임서 ... 롯데백화점·충장로 팬사인회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가 열린다. KIA 타이거즈가 내달 3일 일일호프 및 사인회를 열고 뇌경색으로 투병중인 김동재 코치 돕기에 나선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밤10시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 밀러타임에서 일일호프가 열리며, 롯데 백화점과 충장로 일대에서는 사인회와 사인회 판매 행사가 펼쳐진다.

일일호프는 3~6시, 6~8시, 8~10시까지 3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선수단 전원이 참석해 홈 유니폼을 입고 서빙에 나선다.

2부 행사에서는 선수단 애장품 경매행사도 열린다. 서재응과 이범호가 각각 뉴욕메츠 시절 유니폼과 소프트뱅크 유니폼을 경매에 내놓았고, 이종범의 유니폼 윤석민의 스파이크도 경매에 나온다.

차일복과 나지완, 이용규, 김상현 등도 자신의 미트와 배트 등을 경매 물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행사장 정문에서는 포토타임과 사인회 등을 통한 모금활동이 펼쳐지며 구단도 각종 기념품을 판매, 수익금 전액을 김동재 코치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지완을 필두로 충장로 일대에서 사인회 판매 행사도 진행된다.

구단 스폰서체들도 사인회 행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한다.

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롯데백화점에서 이범호·이용규·윤석민·안치홍 등이 참석한 사인회가 열리며,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사인회 개최 비용을 김동재 코치 돕기에 기부한다.

내달 10일 이범호·김선빈·안치홍 등의 사인회를 여는 밝은안과 21도 사인회 개최 비용을 김동재 코치 돕기에 쾌척한다. 수완병원 역시 상품 구매 등을 통해 돕기에 참가한다.

상조회장인 차일복은 "김동재 코치님이 하루 빨리 완쾌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2회째를 맞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돕기 행사를 준비했다. 선수단 모두 제 일처럼 열심히 나서줘 좋은 행사가 될 것이다. 많은 팬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F1 시즌 마지막 대회 '레드불' 웨버 우승



마크 웨버(호주·레드불)가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의 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했다.

웨버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끝난 2011시즌 19라운드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4.309km의 서킷 71바퀴(총길이 305.909km)를 1시간 32분 17초 464에 달려 1위에 올랐다. 웨버는 2위를 차지한 팀 동료 제바스티안 페텔(독일)을 16.9초 차로 비교적 여유 있게 제쳤다.

지난해 4승을 거둔 웨버는 올 시즌 첫 승을 뒤늦게 신고하며 내년 시즌을 기약하게 됐다. 개인 통산 7승째다. 올해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컵은 페텔이 일찌감치 차지한 가운데 젠슨 버튼(영국·맥라렌)이 2위로 시즌을 마쳤다. 이날 우승한 웨버가 3위다.

미하엘 슈마허의 시즌 13승 기록에 도전했던 페텔은 올해 마지막 두 대회에서 승수를 보태지 못해 11승으로 시즌을 마쳤다. /연합뉴스

## 삼성·소프트뱅크 쇼 최강 가린다

### 오늘 결승 ... 장원삼 선발

삼성 라이온즈와 소프트뱅크 호크스(일본)가 아시아 프로야구 최강팀 자리를 놓고 29일 오후 8시(한국시간)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구장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3년 만에 부활한 아시아 4개국 프로야구 챔피언 결정전인 2011 아시아 시리즈에서 각각 3전 전승(소프트뱅크)과 2승1패(삼성)를 거두고 결승에서 올 시즌 우승을 위해 마지막 경기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공수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뽐낸 소프트뱅크는 일본팀의 5회 연속 우승을 위해 베스트 라인업을 꾸릴 참이다. 한국팀으로는 첫 정상 등극에 도전하는 삼성도 필승 계투조를 총동원해 소프트뱅크의 공격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일전이고, 지난 26일 소프트뱅크에 0-9로 대패한 삼성이 설욕을 베풀려는 점에서 결승전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은 원소 투수 장원삼이, 소프트뱅크에서는 오르발 세스 다다시가 선발투수로 나선다.

차우찬과 윤성환, 외국인 투수 2명이 이번 대회에 결장하면서 삼성의 1선발은 맡은 장원삼은 25일 퍼스 히트(호주)와의 경기에서 6이닝을 2점으로 막고 승리를 따냈다.

원소 타자가 많은 소프트뱅크를 겨냥해 일찌감치 결승전 선발로 낙점된 장원삼은 스트라이크존 내외곽을 찌르는 제구력을 앞세워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정규리그에서 팀내 다승 3위(14승)인 세쓰를 내세워 잔말 야구를 펼칠 참이다.

세스는 시속 148km짜리 빠른 볼과 슬라이더, 커브를 던지고 결정구로 상커를 잘 던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 노사연 Dinner Show

##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블룸 2011. 12. 15(목) 19:00

예약 및 문의 : 062)228-4711~2 대표전화 :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롤케익 증정)